

안녕하세요~

2023년도 조금씩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새로운 한해를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들 되길 바랍니다.

이번 학기 복음을 맡은 청지기로써 충성스럽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유학생들을 만나 복음을 전할 수 있어 참 감사했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지내는 것이 복음 전하는 자의 기쁨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스토리(신촌 이야기)



네팔에서 온 **숨니마** 자매를 기억하시나요? 숨니마는 예수님을 모른채 한국에 왔지만, 복음을 듣고 "저는 예수님이 필요해요"라고 복음에 응답했습니다.

숨니마 안에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계십니다. 올 여름 8월에 유학생들, 신촌 팀 선교사님들과 고성으

로 2박 3일 수련회를 갔었습니다. 이 시간 숨니마는 동해 바다에 몸을 담그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1월에 유학생 몇 명과 성경 통독을 3일간 했는데, 숨니마가 친구약 성경 다 완독 못했이라며, 놀라가는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스스로 성경을 읽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흠뻑 빠져든 예수님의 양 숨니마는 우리 사역자들에게 큰 기쁨입니다~~

토마스를 기억하시나요? 6월에 토마스가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토마스의 왼쪽 무릎 위에 손을 올리고 토마스를 위해 기도해 주었습니다. 사고로 인해 미국으로 돌아가 무릎 수술을 해야 될 수도 있었기에 무릎의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었습니다. 10월에 토마스가 수술 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토마스의 아픈 무릎을 위해 계속 기도하고 있었는데 너무 감사가 되었습니다.

토마스는 지금 한국에서 외국인으로 이루어진 기획사에 소속되어 배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토마스가 나온 TV 프로그램을 보고 엄청 반가웠습니다. 토마스는 한국에서 외국인 배우로 활동하는 것이 꿈입니다. 지금 여러 프로그램에 조금씩 얼굴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한국으로 와 배우의 삶을 도전하는 토마스의 앞으로가 참 기대됩니다^^

숨니마의 친구 **애니**가 있습니다. 파키스탄에서 온 유학생입니다. 애니는 파키스탄에서 공부 엄청 잘하던 엘리트 학생이었습니다. 물론 연세대에 와서도 공부 잘하고 있습니다. 애니는 이슬람교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 많습니다.

애니가 11월 초에 저희 외국인 사역부(Bridges International)에서 주최한 한국어 말

하기 대회(주제: 내가 만난 예수님)에 참가했습니다. 참가자 중 유일한 비그리스도인 유학생입니다. 애니가 한국어 말하기 대회에 참여하여 다른 참가자들이 전하는 '내가 만난 예수님' 스토리를 듣게 하기 위해 유일한 예외 학생으로 참가 시켰습니다. 애니는 다양한 학생들의 간증을 듣고 기독교에 대해 마음이 많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신촌 팀 1박 2일 여행에도 따라와 다른 학생들의 신앙 간증을 통역해 주기도 했습니다. 속히 애니의 마음이 열려 애니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기도합니다.



한국어 교실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폴란드인 **윤호**(한국 이름)의 인생 스토리를 들었습니다. 한국어 실력 향상을 위해 한국어로 인생

스토리를 말해 달라고 했는데 엄청난 스토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윤호는 Brother Andrew 선교사(동서 냉전 시기 구소련 지역으로 성경을 몰래 가져가서 나누어 줌)의 책을 읽고, 세계에서 기독교가 가장 핍박받는 나라에 가길 소원했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폴란드에서 북한에 짧게 여행을 갔습니다. 여행을 갔다 돌아오는 길에 북한을 선교하는 단체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과 연결되어 5년간 북한에 들어가 병원과 양로원을 지어주고 상수도도 깔아주며 살았습니다. 아주 몰래 복음도 전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단체에서 만든 건물마다 단체의 로고를 붙일 수 있게 허락되었는데 로고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윤호는 코로나로 인해 북한에서 어쩔 수 없이 나오게 되었는데, 다시 북한에 가길 바라며 저희 팀에 와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기도 부탁 드립니다

-코코(중국인)가 잘 때마다 악몽에 시달립니다. 코코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지켜주소서.

-묘묘(중국인)가 혼자 있을 때마다 우울한 감정에 시달리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마음에 가득하게 하소서.

-형문(대만인)이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로 했습니다. 형문의 신앙이 굳건한 말씀 위에 세워지게 하소서.

-애니(파키스탄)가 예수님을 구세주요,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게 하소서.

-서영(한국계 미국인): 계속해서 한국어 교실에 나와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게 하소서.

-한디(중국인)의 꿈인 복음 전하는 교수가 되는 것을 이루어주소서.

재정의 필요(첫 번째)

12월 27-29일 겨울 유학생 수련회가 있습니다. 수련회비가 1인당 10만원입니다. 유학생들 수련회비를 도와주고 싶습니다.(국민은행 613201-04-212563 예금주 송해곤)

재정의 필요(두 번째)

사역 동역자분들 중 여러분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재정적으로 송해곤 선교사를 후원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계 각국의 유학생들을 한국으로 부르셔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이 일을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 새로운 사역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저는 새롭게 1만원 후원자 20분, 2만원 후원자 20분이 필요합니다.

이 사역에 함께 하고 싶은 분은, 혹시 이미 재정 후원을 하시는데 새해에 1만원을 더하여 후원하시고픈 분은 CCC(한국대학생선교회) 선교후원회 02-397-6300번으로 전화하여 송해곤 선교사 후원을 신청하시면 됩니다.